



수산업,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노력 필요



국내외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8일,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사항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탄소 배출량은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강도 높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사항안

이에 따라 농축수산부문의 탄소배출량 목표 수준도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2018년		2050년
합계	24.7 백만 톤	→ 37.7%	15.4 백만 톤
에너지	3.5 백만 톤		0.2 백만 톤
비에너지	21.2 백만 톤		15.2 백만 톤

단위 : 백만톤CO2eq

농축수산부문의 탄소배출량은 '18년 24.7백만 톤 수준인데,
2030년까지는 27.1% 감축된 18.0백만 톤, 2050년까지는
37.7% 감축된 15.4백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또한 올해 11월 21일,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설립목적 : 해양환경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양상과 영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

TF 구성 : 탄소중립분과, 관측·예측분과, 적응·예방분과

최종목표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마련



**국제적으로는 올해 10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 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 총회입니다. 올해는 26번째 총회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Parties



특히, COP26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측은 갯벌, 인도네시아측은 맹그로브를 자국의
블루카본으로 소개하고, 블루카본 기술교류 등 국제 협력 방안,
해양기반 탄소중립 활성화와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염생식물, 조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더불어, 동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선언하였습니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메탄 배출의 상당량이 농축수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메탄 발생량을 30% 줄이기 위해선 농축수산부문의 메탄 발생량을
9년 내로 250만 톤을 감축해야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맞춰 수산업도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분야는 어선 및 설비 연료의 전기·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등 추진,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 등이 감축수단으로써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를 개선하고,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기술 보급 및 개발,
어업인 교육 및 훈련, 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 중 탄소 감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CPTPP 가입 등에 대비하여 국내보완대책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보완대책 중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노후어선 부분개량),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등은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